개학 연기 영향?…청소년범죄 확 늘었네

광주·전남 3월 5대범죄 278건 지난해 동기 대비 79%나 증가 절도·폭력 가장 크게 늘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학이 3차례 연기되면서 학교・학부모의 관리에서 벗어 난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가 심각해지고

한 달 넘게 개학이 늦춰지는 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절 도, 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지난 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한 금은방 에서 $15\sim17$ 세 청소년 5명이 손님 행세를 하면서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청소년 일당은 운전면 허 없이 렌터카를 몰고 다녔으며, 훔친 귀 금속은 전남지역 금은방에 처분했다.

또 같은 날 광주시 북구에서 한 고등학 생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승용차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쳤다.

지난달 25일 화순에서는 시동이 걸려 있 던 자신의 이웃 집 1t 트럭을 훔쳐 타고 간 중학교 3학년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학생 은 40분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 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와 전남지역에 서 붙잡힌 청소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 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총 278건(광 주 154건·전남 124건)이다.

지난해 3월에 검거된 청소년 5대범죄 155건(광주115건·전남40건)에 비하면 79%나 증가한 수치다.

광주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같은 기간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을 살 펴보면 강도 0건에서 3건, 강간·강제추행 1건에서 2건, 절도 53건에서 97건으로 늘 었다.

전남의 경우는 강도 0건에서 1건, 강간. 강제추행 0건에서 3건, 절도 34건에서 112건, 폭력 6건에서 8건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 모두 살인사건은 없었다.

특히 장기간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이 거 리로 나와 상가나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금품털이 절도사건이 급증했고,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훔쳐 타는 무면허 운전사건도 빈발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가 한 달 동안 70% 이상 증가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사회적거리두기로 PC방이 나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주요출입 장소 출입이 어려워진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코로나19로 한정된 공간에 청소년들 이 머물다 보니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밖 에 없다"면서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시대 에 맞는 학생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여수경찰은 청소년 범죄행위 빈발 로 차량털이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자, 범 행의 대상이 되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 는 차량 주변이나 CCTV가 없는 주택가 등을 집중 순찰하고 있다.

전남 경찰도 지난해부터 지난 7일까지 발생한 소년범 절도 336건(차량털이)을 분석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홍보와 예방교 육을 진행하고, 출소한 소년범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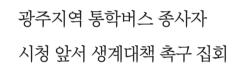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지역 5·18 40주년 행사 대부분 취소…기념식은 축소

전남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5· 18 40주년 기념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

'전남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행사위 원회'(전남 5·18행사위)는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 고자 준비하던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대 폭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5·18행사위는 5월 15~16일 전남도 청 앞 남악 중앙공원에 예정된 '도민 난장' (도민어울림), '518남도울림-도민 대행 진', '청소년민주행동거리', '내일로 콘서 트'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취 소했다. 다만 5월 15일 기념식과 5·18 당 시 흔적이 남아있는 옛 전남도청 현판 복 원 제막식은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방식으 로 축소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막막해진 통 학버스 종사자들이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통학버 스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빛고을 나눔 버 스 연합회'는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 를 열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휴교, 휴원, 휴업으로 수입이 끊긴 통학버스 종 사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 소했다. 연합회는 "당국은 교육 시설에 지 급된 지원금 사용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 라"고 촉구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呇 7/23 11/20 9/20 11/17 10/20 9/20 GIST, 캠퍼스 자율주행 순찰차·무인 택배 운영

18(토)

06:53

18:48

01:25

13:18

19(일)

06:02

19:04

7/23

2/18

5/17

4/21

4/17

1/22

8/16

00:55

10:51

강릉

 \bigcirc

 \bigcirc

부산

 \Diamond

보통

보통

보통

21(화)

달짐

청주

 \Diamond

Ö

◇ 생활지수

감기

9

뇌졸증

P

미세먼지

20(월)

 \Diamond

대구

Q

서울

 \Diamond

 \Diamond

Q.

대전

 \Diamond

Q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올해 안에 캠퍼스에서의 '자율주행 순찰차'와 '무 인 택배·배달차'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

오늘의 날씨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5/21 보성

6/17 순천

8/20 영광

2/21 진도

6/20 전주

2/23 군산

3/20 남원

2/19 흑산도

오전

1/21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북서~북| 0.5~1.0 |남서~서 | 0.5

북서~북 0.5~1.0 남서~서 0.5~1.0

|먼바다(북)|서~북서|1.0~1.5|남~남서|0.5~1.0

먼바다(남) 서~북서 1.0~1.5 남~남서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남서~서 0.5~1.5

금애 서부 먼바다(서) 서~북서 1.5~2.5 남서~서 1.0~2.0

간조

12:00

23:57

07:38

19:20

17(금)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큰 일교차

목포

나주

구례

강진

해남

장성

◇ 바다 날씨

여수

15(수) 16(목)

◇ 주간 날씨

GIST 인공지능연구소는 13일 광주지 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특장차 전문제 작업체인 화인특장, 자율주행자동차 유 망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무 인자율주행 플랫폼 공동 연구를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GIST는 ▲ AI 기반 미래 자동차 분야 상호 인력 교류 ▲ AI 기술 협력체계 구

축 ▲ 인공지능기반 미래 자율주행 자동 차 산업 생태계 조성 ▲ 특정 목적 차량 용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개발 등 분야에 서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캠 퍼스에서 '자율주행 순찰차'와 '무인 택 배·배달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자 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은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온라인 수업에 행정용 컴퓨터 50대 지원

광주 남구는 온라인 개학을 한 학생들 에게 행정용 컴퓨터 50대를 무상 임대한 다고 13일 밝혔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 수보다 컴퓨터 대수가 부족한 가정이라면 누구 나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광주시교육청 등에서 태블릿 PC 등을 지원받은 가정 은 제외된다.

신청이 많지 않을 경우 해당 컴퓨터는 청 소년 공동생활 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대면 수업 이 시작되면 컴퓨터를 회수해 정보 취약 계층에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랑의 그린 PC 보급 지원 사업' 등의 용도로 기증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대 요리실습 온라인 강의

상을 촬영하고 있다.

호남대학교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오는 24일까지 비대면(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한 가운데, 13일 오후 외식조리학과 김영균 교수가 '한국 조리' 과목의 실습교육용 동영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치원 중간입학 왜 어렵나 했더니…광주 10곳 중 7곳 결원정보 비공개

광주지역 유치원들이 유치원 입학 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리시스템상에 결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간입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 왔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사이트(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중 결원정보를 공개한 곳은 공립 72개원, 사립 17개원 등 모두 89개원으로 전체(313개원)의 28.1% 수준이다. 10곳 중 7곳 꼴로 결원

이에 따라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2월까 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이뤄지는 일반・추가 모집에서 탈락한 경우나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중도에 유치 원을 보낼 경우 등 불가피하게 중간 입학 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처음학교로'가 도입되기 전처럼 일일이 유치원별 원아모 집 공고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돌리거 나 유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상황이 유치원 원아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와 함께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 임은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중간입학을 위한 시스템인 '세종아이 처음입학'을 개 설, 모든 유치원의 결원정보를 실시간 공 유하는 등 매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 신 입생 모집공고 전까지 중간입학과 대기신 청이 가능토록 조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 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号器型 1(%) 實別冊明

2020. 3. 23 ~ 2020. 6. 30일까지 판매처- 52개 판매 대행점 (지정금융기관)